전남광주시, 권역별 재난대응 협력체계 다진다

장흥서 첫 회의…7차례 순회 예정
애로사항 청취·재난취약지역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이후 시·구·군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연다.

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인접 시·구·군을 권역별로 묶어 총 7차례 진행된다.

지역별 재난 여건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으로 이날 장흥군청에서 나주시·화순군·장흥군·보성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한 '재난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광주시 김준영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각 시·군 재난안전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주요 재난취약지역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흥군에 조성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총사업비 370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 등 8개 분야의 체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어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토사 유실 피해가 발생했던 장흥군 안양면 지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위험 요인과 응급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장흥군 간담회를 시작으로 나머지 권역에서도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발굴된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재난안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영 전남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전남광주시의 재난대응 역량은 특별시와 시·구·군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서 비롯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3일 덕흥동 제설창고에서 겨울철 설해 대비를 위해 제설차 정상 작동 여부 및 제설제 비축 현황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공〉

"수산자원 회복" 전남광주시, 7개 해역 인공어초 설치

연말까지 여수·고흥·신안 1천115개
시설 점검·폐어망 수거 등 관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여수·고흥·신안 7개 해역 88ha에 인공어초 1천115개를 설치하고 시설 점검과 폐어망 수거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사업은 17개 단지, 총 88ha 규모로 어류용 72ha와 패조류용 16ha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여수 남면 연도 16ha, 화정면 개도·사도 12ha, 고흥 봉래 외초 16ha, 신안 비금 신원 20ha, 흑산 예리 24ha에 연말까지 인공어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명 '물고기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는 바닷속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과 먹이생물의 서식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획량이 평균 2.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전남광주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총 4만6천686ha 해역에 인공어초 약 31만개를 설치해 수산자원 조성 기반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시설 효과를 지속해서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상태와 서식생물상, 어획량 등을 조사하고 폐어망 등 수중 폐기물을 수거해 어초 기능 유지와 해양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설치 해역의 수로측량을 통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인공어초 설치 예정지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진 전남광주시 친환경수산과장은 "인공어초 설치는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어초의 기능을 점검하고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소통 강화

도시철도건설본부, 홍보전담팀 꾸려
SNS 채널 통해 매월 공정률 등 공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3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전담팀(TF)을 꾸려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달 26일 7개팀 총 10명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2호선 TF를 발족했다.

전담팀은 도시철도건설 누리집 정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개설을 통해 사업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철도 2호선 TF는 정보의 적시성과 시각 중심의 콘텐츠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계정(@jngjsubwayconst)을 개설하고 공사 현장 소식 등 4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 전남광주시 대표 계정의 도시철도 관련 게시글 5건을 연계해 홍보했다.

도시철도건설 누리집도 정비해 '본부 소식' 게시판을 신설, 본부 내 행사 및 회의, 자체 홍보 추진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관심이 높은 도시철도 2호선 전체 및 분야별(토목·건축·소방 등) 공정률을 공개해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SNS 채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현장 사진과 영상을 주 1회 SNS에 게시하고 매월 한차례 누리집을 통해 최신 공정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변은진 기자

올해 광양만권 오존주의보 36회…작년比 28%↓

전남보건환경硏 "기상 여건 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광양만권 오존주의보가 지난해보다 28%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달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한 결과 올해 옛 전남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37회였다.

이 중 광양만권이 36회로 97.3%를 차지했다. 광양만권 발령 횟수는 지난해 50회에서 28%(14회)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 8.5%를 크게 웃돌았다.

오존주의보 감소에는 기상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농도 시기인 5-7월에는 평균 풍속이 높고 바람이 약한 날이 줄었으며, 6-7월에는 구름양이 많아 일사량이 감소하는 등 오존의 축적과 생성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 9월 전국 분석에서 일사량 감소와 강수일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원은 이번 감소를 대기질의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오존농도는 일사량과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존은 대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이 태양에너지와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오존의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에 연구원은 고농도 오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은 권역 측정소 중 가장 높은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해 장시간 흡입하면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 천식과 기관지 질환을 악화시킨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짧은 시간 노출돼도 호흡기와 폐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식물에도 잎마름이나 반점을 일으켜 생산량을 떨어뜨릴 수 있어 대기환경기준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